남 · 북한 박물관의 교류와 협력방안

최광식 (고려대학교 박물관 관장)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의 만남과 공동선언문 채택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에 따라 남북간에 경제와 문화의 교류와 협력이 간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의선 철도 복원과 동해안도로의 개통 및 개성공단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이미 이루어졌다. 또한 KBS와 MBC 등 방송국이 주축이 되어 교향악단 연주회 및 대중가요 공연 등도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적인 동질성을 찾아 서로가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동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동질성을 찾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의 박물관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박물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교류와 협력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박물관 현황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지도자에게 보낸 진귀한 기념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북한의 박물관 중에 건물이 가장 넓고 시설이 좋으며, 전시장도 제일 좋았으며 조명도 가장 밝았다. 건물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나 마치 목조인 것처럼 지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의 색깔을 활용하여 단청으로 한 것이 인상적이다.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것이 16만여점,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것이 5만 여점으로 모두 21만 여점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보낸 진귀한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남한에서 온 것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그리고 김정배 총장이 선사한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앞으로 몇십년이 지나면 정말 귀한 전시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들을 다 보려면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묘향산의 보현사 경내를 '력사박물관'이라 하여 유적과 유물을 야외박물관 개념으로 전시하고 있다. 사천왕상과 대웅전 및 불상 등은 모두 개건한 것이며, 13층석탑과 금강산에서 가져온 종이 잘 남아 있다. 팔만대장경보존고에는 팔만대장경을 인간한 불경과 경판 일부 및 금속활자 몇 개를 전시하고 있다. 수충사에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중앙력사박물관은 전시실이 모두 19개로 구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시대, 고조선시기 등 시기별로 전시실

을 배치하였는데 고조선실에 소위 단군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고구려실은 4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개토왕릉비를 원래 크기 그대로 복제하여 전시하고, 안악 3호분과 강서큰무덤을 벽화와 함께 복제하여 전시하고 있다. 반면에 신라와 백제 및 가야는 합쳐서 전시실이 하나 밖에 없으며, 그나마 모조품이 대부분이었다. 그곳의 관계자에게 신라와 백제 및 가야의 유물과 북쪽의 고구려 유물을 교환 전시하자는 제안을 하였더니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발해실은 방 하나에 발해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상경용천부 궁궐에서 출토된 치미를 전시하고 있다. 고려는 전시실이 셋이 있는데 강감찬 장군의 초상화와 귀주대첩의 기록화와 같은 고려의 대외항쟁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시하여 전시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도자기 등 좋은 유물들은 개성에 있는 고려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전시실도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국대전, 리조실록, 대동여지도, 평양성도 등을 전시하고 있으나 복제품이 많았다. 맨 마지막 전시실에는 갑신정변과 갑오농민전쟁 및 3.1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후의 것들은 혁명력사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평양에는 중앙력사박물관과 혁명력사박물관 이외에 조국해방전쟁전승기념관,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 등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전승기념관에는 6.25 이후의 현대사자료, 민속박물관에는 민속품, 미술박물관에는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에 평양의 정백동과 토성동에서 발굴한 유물을 전시하는 낙랑박물관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각 도에는 도청소재지에 력사박물관들을 하나씩 세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신천에는 6.25 때 미군의 만행과 관련된 신천박물관이 있으며, 개성에는 고려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고려박물관이 성균관 건물에 있다.

1945년 12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이어 청진 · 신의주 · 함흥 · 사리원 · 해주 등지에 역사박물관이 세워졌다. 1948년 8월에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조선혁명박물관으로 바뀜)을 개관하였다. 휴전 직후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세워졌으며, 이후 조선미술관과 보천보혁명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및 영풍 · 고산진 · 삼등 · 개성 · 포평 · 연안 · 동창 · 홍원 · 북청 · 리원 · 만경대 · 왕재산 등 각지에 혁명사적관과 혁명박물관들을 연이어 개관하였다.[1]

2. 남북 교류 전시회의 현황

지금까지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함께 가진 전시회의 사례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남북이 협력하여 전시회를 가진 것은 평양에서 2001년 3월에 가진 〈일제의 조선강점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라 하겠다. 이 행사는 3.1절 82돌에 즈음하여 남북 공동의 학술행사로서 최초로 평양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의의를 갖는다.[2] 인민대학습당에 차려진 전시장에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1,000점의 자료가 전시되었다. 이어서 2003년 2월에 〈일제의 조선인강제연행의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가 열린 바 있다. 남측의 월간 『민족21』 · 한국일보 · SBS와 북측의 조국통일연구원 · 조선력사학회 · 조선사회과학원 · 국제문제연구소 등이 주최를 하였으며,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회의장 3면 벽을 이용하여 전시장을 꾸몄는데 벽면 가까이에 전시 구조물을

1) 김광운, 2001, 「현대사 연구자의 북한 역사학계 탐방」, 『역사비평』 55호 , 역사비평사.
2) 김광운, 2001, 「현대사 연구자의 북한 역사학계 탐방」, 『역사비평』 55호 , 역사비평사.
3) 조동걸, 2003, 「남북한 역사학자의 평양학술대회 참관기」, 『학국사학사학보』 7호 , 한국사학사학회.

설치하여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한 전시였다.[3] 전시내용은 일제의 징병포스터, 탄광노조, 철도 등 노동에 동원된 징용과 보국대 노동현장, 종군위안부 모집 선전물, 수업을 폐지하고 노동현장에 동원된 남녀 학생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전시하였다.

한편 2002년 9월 26일에는 세계거석문화협회와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주최로 남북에서 준비한 90여 점의 고인돌 사진의 공동사진전시회를 국제교류회관에서 가진 바 있다.[4] 그리고 2002년 10월 3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회의장에 단군릉 발굴 사진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다.[5] 그러나 위의 전시들은 모두 사진전시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본격적인 전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남북이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격적인 전시로는 2002년 12월 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고구려-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 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중앙일보 및 SBS가 주최하였으며 (주)바인홀딩스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시회에 북한의 중앙력사박물관이 후원하고 있으나 남한의 박물관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한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 유물들이 거의 전시되고 있지 않다. 모처럼 북한의 중앙력사박물관 유물들이 남한에 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남한의 박물관들이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며, 반성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유물은 왔으나 북한의 박물관 관계자들이 오지 않아 남한의 박물관 관계자들과 인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3.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 방안

앞으로는 박물관인들이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남북한 박물관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박물관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부터는 박물관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남과 북의 자료들을 교환전시하거나 공동전시를 개최하는 방안이다. 남쪽에는 신라와 백제 및 가야의 자료가, 북쪽에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자료가 많으므로 이를 교환하여 남한과 북한에서 전시하는 방법이다. 또는 판문점이나 금강산 등에서 남북한의 자료를 모아 공동으로 전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하여 유물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여 남북한의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이다.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대한 출판물을 교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을 비롯한 학술조사와 발굴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기술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지금 북쪽에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수행하여야할 유적이 대단히 많으나 인력과 재정의 부족으로 엄두를

4) 서영수, 2002, 「민족사의 원류를 찾아 북녘땅을 가다」, 『한국고대사연구』 28집 , 한국고대사학회.
5) 최광식, 2002,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참관기」, 『역사비평』 61호 , 역사비평사.

내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남북한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학술토론회를 가진다. 남한과 북한의 박물관인들이 함께 남북한의 문화유산과 이를 보존 관리 전시하는 문제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문화정보를 교환한다.

다섯째,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따르는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현재 북한의 박물관 건물이 매우 오래되어 노후화한 것이 많으며, 박물관 전시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최신 보존과학 기술과 장비를 지원한다.

여섯째, 판문점이나 금강산에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통일박물관을 건립한다. 이 박물관을 남북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남북의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전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 이후에도 통일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DMZ에는 그 동안 사라진 희귀식물과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여 여기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

맺음말

앞으로 남한의 박물관 관계자들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북한 박물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먼저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박물관학회는 박물관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창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의 교류전시, 공동발굴조사, 공동학술행사 등을 기획하고 문화관광부와 통일원의 지원을 받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정보화하도록 하여 남북한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2004년에는 서울에서 ICOM 총회가 열리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행사를 계기로 북한의 박물관이 국제적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북한이 현재 UNESCO에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한의 박물관 관계자들이 북한의 문화유산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한의 행정당국과 박물관인들이 남한의 박물관인들에 대해 신뢰를 하여 박물관인들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